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제주도의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고향이 자리하였다. 우리나라의 기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웬 고향 타령인가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고향이 있었기에 감히 지금의 글을 써 보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었다. 만약 고향 마을이 컸더라면 기후에 대한 느낌이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작은 고향 마을 덕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린 시절 이야기는 대부분 날씨와 관련이 있다.

고향 마을에 학교가 없었기에 이웃마을에 있는 학교까지 걸어서 다녀야 했다. 말이 이웃이지 정확하게 3km나 떨어져 있는 학교였으니 꽤나 먼 거리였다. 그 길을 걸으면서 멀리 태평양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큰 행운이었다. 낮과 밤, 비가 내리고 햇볕이 내리쬐에 따라서 바뀌는 바다의 모습을 보며 날씨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뜨거운 날에는 뜨거운 날대로, 추운 날에는 추운 날대로 날씨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 갔다. 그런 6년 동안의 경험이 오늘날 '날씨'에 대한 지식의 밑거름이 되었다.

간단한 예로, 길을 가다 학생들에게 '저기서 소나기가 다가온다'고 하면 처음에는 모두 믿지 않는 표정이다. 소나기가 다가온 뒤에야 '그게 보이느

냐고 묻는다. 고향에서의 생활이 소나기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사실 우리 고향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소나기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작고, 날씨 변화가 잦은 고향이 남다른 눈 하나를 더 선물한 것이다.

학교가 바로 지척에 있었다라면 분명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 한겨울의 추위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한여름의 무더위가 얼마나 참기 힘든 것인지 몰랐을 것이다. 봄이 되면 안개가 자욱하게 낀 등갯길에 행여 귀신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염려하다가 제주도의 안개를 새삼 깨닫기도 하였다. 학교가 멀리 떨어진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가.

학창 시절에 관한 추억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웬만한 사람이라면 졸업식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쯤은 지니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제주도의 겨울 날씨 때문에 그런 추억을 만들지 못하였다. 당시 서민들이 제주도를 벗어나는 방법은 통통배 수준을 겨우 벗어난 여객선뿐이었다. 때문에 바람이 거센 겨울에는 결항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손자의 대학 입시를 걱정하는 조부님의 조바심을 이끌어 내었고, 하루라도 빨리 시험을 치를 고장에 가 있으라는 독려로 이어졌다. 그 바람에 나는 시험을 치를 학교가 있는 서울에서 졸업식장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친구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다.

나이가 들어서는 멀리 있는 고향 때문에 또 다른 날씨에 대한 경험이 쌓여갔다. 겨울 방학을 하고 고향을 찾을 때, 경비를 아끼려고 목포에 가서 배를 타려다 오히려 돈을 더 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맑은 날임에도 호남지방에만 눈이 쏟아지는 경우가 흔하였다. 그 눈으로 버스가 늦어져 배를 놓치기도 하였고, 폭풍주의보가 내려져 배가 못 떠나 발이 묶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때면 별 도리 없이 목포항 주변 어느 여인숙에선가 기약 없는 불편한 밤을 보내야 했다. 점차 날씨의 중요성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세월이 더 흘러 공군 기상장교 시절의 경험은 날씨와 기후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다지게 하였다. 경험과 이론이 하나로 묶이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 무렵 나는 날씨에 대해 꽤나 아는 척하였다. 사실 날씨를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땐 왜 그랬을까, 부끄러움이 밀려온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행동이 날씨와 기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면도 적지 않다. 아는 척하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래서 바로 잡아 가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처음 자동차를 갖게 되었던 때 역시 하나의 전기가 되었다. 자동차는 무엇 보다 빠르게 많은 장소를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어 기후 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지형에서는 날씨의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금 있는 곳과 고개 너머의 기후가 어떻게 다른지를 쉽게 볼 수 있었다.

한때 기후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에게 기후를 눈에 그리듯 보여 줄 수 없음을 안타까워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조금 알고 들여다보니 기후와 관련되지 않은 경관이 없었다. 자연이든 주민 생활이든 모든 피조물은 기후를 배경으로 함을 깨닫자 기후를 볼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던 일이 부끄럽게 다가왔다. 그러면서 점차 답사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답사 횟수도 늘어 갔다. 남들은 갔던 곳을 왜 다시 가냐고 핀잔을 주기도 하지만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고 그 대부분이 기후와 관련된 경관이었기에 이미 나에게서 '한 번 가 본 곳'이란 없었다. 학교에서 '한국의 기후' 라는 과목을 강의하게

된 것은 꼭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답사에서 보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말이다.

답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경관 외에도 새로운 연구의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각 지역 간의 차이는 기후의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였다. 그러던 중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의 가옥 조사가 답사에 대한 나의 흥미를 더욱 고조시켰고, 젊은 동조자가 늘면서 그것이 기회가 되어 정식 회원이 없는 '역마살'이란 클럽이 생기기도 하였다.

외국을 답사한 경험은 더 명확하게 우리의 기후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전혀 다른 기후 환경과 그와 관련된 문화경관을 보면서 우리의 기후를 다시 조명하게 되었고, 우리의 기후가 갖는 이점이 새삼스레 떠오르면서 언젠가부터 기후에 관한 이야기가 하고 싶어졌다. 사람들과 마주할 경우 그 사람의 흥미와는 관계없이 기후 이야기를 늘어놓는 경우가 잦아졌고, 낯선 지방 사람을 만나기라도 하면 그곳의 기후 이야기를 캐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이제는 이렇게 얻은 하나하나의 지식 조각을 많은 이에게 전하려고 한다. 이 책은 그러한 시도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나에게서는 직접 경험한 것을 능가하는 지식은 없는 것 같다. 결국 언어들은 지식보다 직접 경험한 이야기가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후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 이외의 이야기는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라 하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를 다 드러내는 것 같아 조금은 부끄러움도 스며온다.